



남원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남원예촌 by KENSINGTON'이 오는 15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남원예촌 한옥체험시설 개관

오는 15일에... 육송·구들난방·전통흙벽 등 순수 고건축 방식 재현

남원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남원예촌 전통한옥 체험시설-남원예촌 by KENSINGTON』이 7월15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남원시는 광한루원 인근 17,400㎡의 부지에 구도심권 활성화 및 관광권역 확대를 목적으로 '남원예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까지 1지구 전통한옥숙박 체험단지과 2지구 전통문화 체험단지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개관을 앞두고 있는 전통한옥 숙박 체험단지(남원예촌 1지구)는 최기영 대목장, 이근복 번와장 및 박강용 옷칠장 등 최고의 명장들이 혼을 담아 건립하였으며, 주요 목부재에 육송, 구들난방, 전통흙벽, 전통기와 및 기, 옷칠마감 등 순수 고(古)건축 방식을 재현하였다.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시 기대 된다. 남원시는 "천년의 전통에 편안함을 더해줬다"라며 전문 위탁운영을 결정했고 이랜드그룹의 호텔레저 사업부 (주)이랜드파크가 운영사로 선정됨에 따라, 브랜드 'KENSINGTON'을 도입하여 '남원예촌 by KENSINGTON'으로 운영하게 된다.

(주)이랜드파크는 호텔(6개소), 리조트(10개소), 콘도(3개소) 및 베어스타운 등 업계 최대 사업장(총23개, 5,020실)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숙박객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며, 7월 15일 개관을 앞두고 홈페이지(www.namwonyechon.com) 및 유선(063-636-8001~8004)을 통해 예약접수 중이다.

시공을 총괄한 최기영 대목장(大木匠)은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제74호)로서 부여 백제재현단지를 비롯해 봉정사 극락전, 경주 월정교 복원공사를 주관하는 등 국내 전통 한옥계를 대표하는 거장이다.

전통 목조건축의 설계·시공·감독까지 겸하는 대목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가 어려운 탓에 현존하는 장인은 30인 뿐이다.

이번 시공에서 최기영 대목장은 "훈과 열정을 담아 마지막 역작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시공에 임했다"며 "남원예촌은 전통한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의 건축에서 지붕은 전통성과

곡선미를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이다. 즉, 가장 아름다운 기술을 만들어 내야하며 부분으로 번과 기(기와)만들기와 잇기)이 좌우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시공에 참여한 이근복 번와장은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제121호)로서 송례문을 비롯하여 웅만한 문화재는 다 그의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내 최고의 기와 잇기 기술자이며, 이는 남원예촌의 전통미가 더욱 더 기대되는 이유이다.

또한 남원예촌은 전통한옥이 화재 및 흰개미 등에 의한 파손에 취약한 점을 옷칠로 개선하였다.

옷은 예로부터 방수·방충·방염 및 항균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생활용품이나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근래엔 접두기·자동차·선박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시공에 재능을 기부한 박강용 옷칠장은 옷칠의 본고장 남원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전라북도 제13호)로서 기아자동차와 협력하여 K9퀵의 내장재에 옷칠공예를 점목하는 등 전통옷칠 분야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이 특목특위 귀농정책으로 예비귀농인들을 끌어들이면서 올해 최대 귀농귀촌 성과를 거둬 전망이다.

순창군 귀농귀촌 성과 '눈에 띄네'

상반기 316세대 527명 으로 지난해 616명 육박

순창군이 특목특위 귀농정책으로 예비귀농인들을 끌어들이면서 올해 최대 귀농귀촌 성과를 거둬 전망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귀농귀촌 인구가 316세대 52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년간 귀농귀촌인 616명에 육박하는 숫자다.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큰 성과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는 천명까지도 인구 유입이 가능하다고 군 측은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순창군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이유는 순창군이 그동안 귀농귀촌인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 해 소해주는 특목특위 귀농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순창군은 귀농전에 필요한 교육단계에서부터 정착지원, 소득사업 지원까지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수도권 홍보를 중심으로 적극적 홍보를 펼친 점도 귀농귀촌인 유입에 한몫하고 있다.

군은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해 상반기에만 수도권 홍보 2회, 박람회 4회에 참여해 순창의 귀농정책을 홍보했다. 특히 선배귀농인들이 참여한 순창의 홍보시스템은 귀농인에게 인기가 높은 걸로 정평이 나있다.

귀농인들을 위한 실제 지원사업도 알차다. 군은 예비귀농인들의 체계적 정착을 위해 2013년 귀농귀촌센터를 개설했다.

선배귀농인이 주축이 돼서 운영중인 귀농귀촌센터는 올해 21회 520명을 대상으로 작물교육에서부터 지역주민과 융화 방법 등 실질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주거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해 4동 규모의 귀농인 마을을 완성했으며 거주, 교육, 농업실습이 가능한 체재형 가족농장도 50% 이상 정착률을 보이고 있다.

또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15세대와 청년 귀농인을 위한 셰어하우스도 운영중이다.

특히, 지역 10대 작물 현장교육, 성공한 농업인이 멘토가 되는 멘토링제도 순창군만의 독특한 귀농정책이다.

이외에도 이사회지원, 집수리지원, 소득사업 지원 등도 실시해 귀농귀촌인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얼마 전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순창의 귀농정책이 예비 귀농인들에게 참인기가 많았다"면서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창군만의 독특한 귀농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코트디부아르 대학생 고창대산면 견학

땅콩·수박 재배방법·시온목장 우수 짜기 등 호응

아프리카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코트디부아르 대학생 20여명이 한국의 농촌, 한옥의 목장을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고창군(군수 박우정) 대산면사무소와 대산면 소재 시온목장(대표 정순화)을 견학했다.

대산면은 국제청소년연합회(지부장 김성규)의 인솔로 지난 7일 한국의 농촌마을을 찾은 코트디부아르 대학생들이 고창의 특산물인 땅콩과 대산수박의 재배방법과 효능 등에 대해 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시식행사도 가져 맛과 효능에 큰 호응을 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자연과 함께 목장을 운영

하는 시온목장에서는 우유를 직접 짜 보고, 청정지역 고창에서 만들어지는 치즈와 요거트도 공개 견학하고 체험하면서 한국의 농촌과 목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김도현 대산면장은 "코트디부아르 학생들이 시온목장 유쾌하면서도 성실하게 견학에 임하며 고창군과 군민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돌아갔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코트디부아르에 가서도 고창군의 매력을 알리겠다고 연신 말하는 학생들에게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건강연구소, 다문화가족 대상 '건강장수힐링체험'

순창건강장수연구소가 관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연구소 주변 힐링 관광자원을 활용해 행복한 가족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여가까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족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연구소는 지난 9일부터 1박 2일간 건강장수힐링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는 순창의 다문화 가족과 초등생 가족들이 교육생으로 40명이 참여를 하였다.

이번 교육은 순창군이 맞춤형 건강교육과 순창의 대표적 힐링 관광지인 건강장수연구소 주변자원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건강장수 순창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가족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을 다양화 했다.

첫날에는 개인별 체성분 측정 및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시간과 은가족이 함께하는 건강요리 체험교실이 진행됐다.

특히 건강요리 체험교실은 '엄마의

나라 세계 민두요리 만들기"를 주제로 각 나라마다 특색있는 민두를 빚어 서로의 문화를 아는 시간을 갖으면서 향수를 느끼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요리에 서툰 아빠를 위한 간편 요리 만들기, 천연 모기퇴치제 만들기, 소중한 가족을 위한 편지쓰기 등도 진행해 가족간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날에는 건강장수연구소 편백나무 숲 산책과 새로운 스포츠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족 운동회가 진행돼 건강도 챙기고 가족간의 협동심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가족단위 체험객들 중에서도 소중한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순창의 건강자원을 활용해 가족의 건강도 지키고 가족간의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건강장수 힐링 문화체험을 모든 군민들이 이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식중독 예방·생닭 취급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 여름철 높은 습도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음식물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식중독과 장염에 걸릴 위험이 높아 음식물의 보관, 관리,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3.0 빅데이터 분석결과(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7월에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32.3%), 학교(29.3%)이며, 원인병원체로는 병원성 대장균(14.7%), 살모넬라(10.7%), 캄필로박터제주니(10%) 순이라고 한다.

이중 캄필로박터 식중독의 경우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닭볶음, 닭죽 등 닭요리에 사용되는 생닭의 세척 부주의, 가열 불충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져 생닭 취급에 대

한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캄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닭구이 후 보관시 물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생닭 세척시 물기가 주변 식자재에 튀어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리도구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세척·소독하고, 조리에는 속 부위까지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먹으며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은 구분하여 보관하고,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섭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8일 드림스타트 강의실에서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실무위임 그룹 회의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교육"을 3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아동복지기관 실무위임 협의체 위원회는 실무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아동복지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조정에 목적을 두고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회의는 종전과 다르게 군산 청소년자치연구소 정근희 소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관내 아동복지기관 실무자 및 지역아동센터장 외 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의 주된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의 현대에 우리 사회적 존재 위치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형태의 플랫폼 사례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형태의 플랫폼 제안 등 의료 교육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직원대상 컨설팅 교육

순창군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난 8일 대민접점 및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5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지방규제개혁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행정부 지방규제혁신과 운영준 사무관을 비롯하여 순실대학교 이윤식 규제개혁 평가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박광렬 연구원 등 4명의 컨설팅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규제개혁 실적 및 2016년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순창군 규제개혁의 현재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초교 앞 스쿨존 캠퍼더 단속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고창초등학교와 고창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와 유관단체, 협력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힘쓰고 있다.

또한 7월부터 매일 아침 등교시간때 고창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 캠퍼더로 교통단속을 실시하여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통관리계장은 "어린이의 안전은 우리 군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이며 우리경찰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북, 유공자 7명 경찰서장 표창장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8일 오전 서장실에서 각 과장 및 동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2/4분기 기능별 숨은 일꾼과 업무유공자에 대해 경위 훈포장 등 7명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은 경무과 성다습 경장, 생활안전교통과 홍용광 경위, 남계파출소 운전재정 경사, 적성파출소장 박인규 경감은 2/4분기 숨은 일꾼에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금과파출소장 홍한표 경위는 응급환자 신속조치로 인명을 구조한 유공, 동계파출소 양은욱 경위와 구림파출소 운영권 경위는 교통사고예방활동 유공으로 표창을 받게 되었다.

최규은 서장은 묵묵히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숨은 일꾼과 업무유공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각인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신뢰받는 순창경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